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김이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 한국미술사 전공
yisoonk@naver.com

- I. 머리말
- II. 『세종실록』 후릉 기록과 현존 석물의 불일치
- III. 『세종실록』 왕릉 기록의 진정성
- IV. 후릉의 후대 변형 가능성 검토
- V. 『세종실록』 후릉 기록의 실체
- VI.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과 〈국상의제(國喪儀制)〉
- VII. 맷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에 관한 각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사료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왕릉에 대한 연구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의궤가 현존하지 않는 조선 초기의 왕릉에 대한 연구에서 왕조실록의 기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선왕릉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왕릉의 내부구조와 석물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권7에 실린 세종 2년(1420) 1월 3일 5번째 기사를 꼽을 수 있다.¹⁾ 석실 안의 구조와 크기, 사용된 돌의

1) 『세종실록』 2년(1420, 경자) 1월 3일(임인) 5번째 기사 원문. “石室廣八尺, 高七尺, 長十一尺。【尺用營造尺, 下倣此。】兩旁石二, 【兩邊各一】高各八尺, 長各十一尺五寸, 厚各二尺五寸。北隅石一, 高八尺, 長十一尺, 厚二尺五寸。蓋石二, 廣各八尺, 長各十四尺, 厚各三尺。加置蓋石一, 廣五尺, 長十尺五寸, 中厚二尺, 四邊厚一尺。門兩邊立石二, 【兩邊各一】高各八尺, 廣各三尺五寸, 厚各三尺。門闕石一, 厚二尺, 長七尺, 廣三尺。門扉石二, 高各七尺, 廣各三尺五寸, 厚各一尺。門倚石一, 高七尺, 廣七尺, 厚二尺。陵室外排地臺石十二, 【刻爲覆蓮】厚各一尺八寸, 長各九尺, 廣各三尺。地面石十二, 【下刻靈芝, 上刻雲彩及十二地神, 雲彩分在左右, 地神在中, 每一石一神。】高各二尺八寸, 長各四尺八寸五分, 厚各三尺。隅石十二, 【狀似石磬, 下刻靈芝, 上刻靈杵及鐸, 杵在左, 鐸在右。】高各二尺八寸, 長各三尺九寸, 厚各三尺。滿石十二, 【刻爲仰蓮】高各一尺八寸, 長各九尺, 厚各三尺。引石十二, 【外端牧丹, 葵花, 菊花, 相間彫刻, 每一端一花兒。】長各六尺, 方廣各一尺一寸。石欄干初面地臺排石十二, 厚各一尺五寸, 長各六尺八寸, 廣各二尺。隅石十二, 【狀似石磬】厚各一尺五寸, 長各四尺四寸, 廣各二尺五寸。石柱十二, 高六尺三寸。【以一尺爲圓頭, 以一尺三寸分作仰覆蓮, 次以九寸爲納竹石端處, 次以二尺一寸兩旁分作仰覆蓮葉, 其仰覆葉間, 刻圓如意紋。仰蓮葉擎竹石端, 覆蓮葉鎮地旁石端, 以覆蓮葉下一尺爲納兩旁地方石處, 紛高六尺三寸。】童子柱石十二, 【以一尺一寸爲圓頭, 其內外面刻爲雲頭, 其雲頭擎竹石連接處。】高各三尺二寸, 四面廣各一尺一寸。地方石二十四, 厚各一尺, 廣各一尺一寸。竹石二十四, 長各四尺九寸, 八面各三寸, 徑八寸。薄石二十四, 廣各二尺, 厚各一尺, 長各五尺五寸。次面地臺排石十二, 厚各一尺三寸, 長各七尺五寸, 廣各二尺。隅石十二, 【狀似石磬】高各一尺五寸, 長各四尺, 厚各一尺五寸。石羊四, 【左右各二】長各五尺, 廣各二尺八寸, 高二尺五寸。石虎四, 【左右各二】長各四尺, 廣各二尺, 高各三尺九寸。錢竹石二, 【以一尺爲圓頭, 次以頭下一尺五寸, 上刻仰蓮, 下刻雲彩, 次以四尺一寸作八面, 其圓徑一尺一寸。】高各六尺四寸。地臺石二, 【八面有腰】高各二尺六寸, 上下圓經各二尺二寸五分。燒錢臺石一, 【其上四角, 高中平有腰, 刻雲彩。】高二尺五寸, 上下皆方, 四面各三尺一寸。石床一, 長十一尺, 廣六尺三寸, 厚一尺四寸。足石五, 【刻爲羅魚頭】圓經各三尺, 高各一尺六寸。足石下臺石五, 長明燈頂子石一, 【頭圓刻爲雲彩】高一尺五寸, 圓經一尺一寸。蓋石一, 【八面雲角】高二尺五寸, 上經一尺一寸, 下經三尺九寸。隔石一, 【八面空其中, 其四面有窓。】高一尺七寸, 徑二尺三寸。臺石一, 【足彫刻上下皆八面, 以其上一尺三寸, 刻爲仰蓮。次一尺二寸作腰八面, 每面隅皆刻蓮珠。次以一尺五寸, 上刻覆蓮, 下刻雲足。】高四尺, 經三尺二寸。有地臺石人四, 【二人冠帶, 二人衣甲, 左右各一相向。】長各十一尺五寸, 【出地上七尺五寸, 入地下四尺。】廣各三尺, 厚各二尺五寸。拜石一, 長六尺一寸, 廣三尺二寸。北庭及東西庭, 廣各六尺。北牆底階一級, 高三尺三寸, 廣二尺五寸。地臺隔石, 滿石具牆, 高二尺三寸, 長五十五尺。地臺高九寸。東西牆底階各一級, 高九寸, 廣各二尺。牆高二尺三寸, 長五十

두께, 그리고 석실 밖의 석물의 종류와 크기, 장식된 문양 등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기록은 조선 제2대 정종 후릉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²⁾, 단순히 한 왕의 무덤에 대한 기록을 넘어 조선시대 왕릉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산릉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사료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실록의 기록이 현재 후릉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어 조선왕릉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³⁾

최근 조선왕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릉 연구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후릉에 대한 실록의 기록이 현존하는 후릉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축적된 연구는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연구물 중에서 이정선의 석사학위 논문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2008) 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2009)에서는 『세종실록』에 실린 후릉의 산릉제도에 대해 특별한 의문 없이 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⁴⁾ 반면 조선왕릉 연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논문에서 후릉에 대한 『세종실록』의 기록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문규는 「조선왕릉 장명등 연구」(2009)에서 왕조실록 기록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으며⁵⁾, 전나나는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일고」(2012)에서 후릉의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르며 상세한 언급이 있는 후릉의 내용을 논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이 내용을 의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⁶⁾ 김상협은 「조선왕릉 석실

八尺八寸。地臺高九寸，南面三階，上階高一尺，南北廣十四尺，東西長五十五尺五寸，中階廣二十一尺，高及長與上階同。下階廣二十七尺，高二尺七寸，【地臺滿石具】長與上階同，當南東西，各有小石梯。”

- 2)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는 숙종 7년(1681)에 정해졌기 때문에 후릉이 조영된 시기에는 ‘恭靖溫仁順孝大王’이라는 시호에 따라 순효 혹은 공정왕으로 불렸으나,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종으로 묘호가 정해지기 이전 시기라고 하더라도 정종으로 칭하고자 한다.
- 3) 『세종실록』에는 석실 내부구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 4)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29쪽;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64-285쪽.
- 5) 김문규, 「조선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30쪽.
- 6) 전나나,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일고: 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객의 구조를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2007)에서 『세종실록』의 기록을 참조하고 있으나 능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실록에 실린 날짜만으로 실록의 기록을 연구에 활용하였다.⁷⁾ 이러한 혼란은 근래 연구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조선시대 현종대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풀어 쓴 후릉수개도감의궤』(2008)에서는 현재 후릉에 배설되어 있는 석물이 실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후대에 일정한 변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⁹⁾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듯 후릉에 대한 실록의 기록과 현존하는 능의 모습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은 거의 경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더라도 이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위치해 있는 후릉은 현재 답사가 불가능하여 능의 내부는 물론 능상의 석물조차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행히 『후릉수개도감의궤』가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에 후릉의 도면과 사진이 실려 있기 때문에 후릉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자료를 토대로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으로 알려진 내용과 후릉을 비교 분석하여 실록의 기록과 현존 유물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II. 『세종실록』 후릉 기록과 현존 석물의 불일치

후릉은 조선 제2대 왕 정종(定宗, 1357-1419)과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金氏, 1355-1412)의 쌍릉(雙陵)이며 북한의 개풍군 영정리에 위치해 있다(도1). 정종은 1398년 9월에 아버지 태조로부터 선위(禪位)받아 즉위하였으나 2년 남짓 왕권을 유지하다가 1400년 11월에 동생인 태종에게 전위(傳

중심으로」, 『문화재』 제45권 제1호(2012), 52-69쪽.

7)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8) 『후릉수개도감의궤』, 병오년(1666) 11월 10일.

9)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풀어 쓴 후릉수개도감의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43쪽.



도1-후릉 전경(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88쪽)



도2-후릉 석물(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99쪽)

位)하였다. 후릉은 1412년(태종 12) 6월 25일에 정안왕후가 죽자 40일 만인 8월 8일에 개경(개풍)에 장사를 지내며 불인 능호이고, 정종은 1419년(세종 1) 9월 26일에 사망하여 이듬해 1월 3일 정안왕후 옆에 묻혔다.

『세종실록』의 1420년 1월 3일 기사에는 정종에 대한 지문과 애책문에 이어 능의 내부 석실부터 외부 석물에 이르기까지 구조와 치수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현재 석실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곡장이나 계절(階節)의 능역은 조성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석물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도2).

실록의 기록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후릉과의 불일치는 첫째, 능의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후릉은 왕과 왕후의 봉분이 나란히 조성된 쌍릉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에는 단릉(單陵)으로 기록

표1-후릉의 주요 석물 크기 비교

구분	『세종실록』의 1420년 기록	후릉 실측	기록 대비 편차
석양 길이	156cm(5척)	120cm	- 36cm
석호 길이	125cm(4척)	110cm	- 15cm
문석인 키	234cm(7.5척)	178cm	- 56cm
무석인 키	234cm(7.5척)	175cm	- 59cm
석상 폭	344cm(11척)	250cm	- 94cm

*15세기 영조척 1척은 박흥수의 연구에 따라 31.22cm로 환산

되어 있다. 석실의 형식이나 능상의 계절(階節) 크기는 물론 석물의 수 역시 단릉에 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양(石羊)이 각 4개이니, 좌우에 각 2개씩 있다. 길이가 각 5척, 넓이가 각 2척 8촌, 높이가 2척 5촌이다. 석호(石虎)가 4개이니, 좌우에 각각 2개씩 있다. 길이가 각 4척, 넓이가 각 2척, 높이가 각 3척 9촌이다”라고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왕릉에서 건원릉과 같은 단릉의 경우에 해당하는 석수의 수이다.

둘째, 석물의 크기에서 기록과 유물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실록에는 각 석물의 크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현존 석물의 크기는 이보다 훨씬 작다. 물론 조선 초기의 도량형이 현재와 다르고, 측량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더구나 실록의 기록과 실제 석물의 비교 분석표에서 보이는 것처럼(표1) 크기의 차이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측량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석물이 실록의 기록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유석(실록에는 ‘석상’으로 표기됨)의 크기는 폭이 무려 1m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전체적으로 실제 석물은 기록의 3분의 2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석물의 세부 표현에서 드러나는 불일치다. 실록에는 석물의 세부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 후릉에 세워져 있는 석물과 분명히 다르다. 실물의 형상을 묘사한 내용은 측량한 치수와 달리 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모든 석물의 세부 표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한다. 우선 실록에는 장명등을 8면이 있는 팔각 장명등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⁰⁾ 현재 후릉에 배설되어 있는 장명등은 화사석이 결실된 상태이지

10) 장명등(長明燈) · 정자석(頂子石)이 1개이니, 머리는 둥글며 운채(雲彩)를 새기었다. 높이



도3-후릉 장명등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98쪽)



도4-후릉 난간석 주두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92쪽)



도5-후릉 병풍석 면석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90쪽)

만 사각 장명등이 분명하다(도3). 이러한 불일치는 난간 석주의 주두 표현에서도 나타난다(도4). 현재 난간석 주두는 방두(方頭)형이지만, 기록에는 원두(圓頭)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와 완전히 다르다. 조선왕릉 석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난간 석주 주두가 네모난 방두인 경우는 제릉과 후릉의 석물뿐이다. 또한 석물의 불일치는 병풍석 면석의 모양에서도 나타나는데, 실록의 기록은 면석의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약 3 : 5인 데 비하여 실제 후릉의 병풍석 면석은 1 : 1에 가깝다(도5).¹¹⁾

이렇듯 후릉에 대한 기록과 실제 현존하는 능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단순히 사관의 실수로 인한 기록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풀어 쓴 후릉수개도감의궤』(2008)에서 추측했듯이 후대의 개수로 인해 능의 형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물과 기록의 불일치는 능의 형식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후릉을 단릉에서

가 1척 5촌이며, 원경(圓徑)이 1척 1촌이다. 개석(蓋石)이 1개이니, 8면에 운각(雲角)이 있다. 높이가 2척 5촌이며, 위의 경(徑)은 1척 1촌이며, 아래의 경이 3척 9촌이다. 격석(隔石)이 1개이니 8면인데 그 가운데는 비었고, 4면에는 창(窓)이 있다. 높이가 1척 7촌이며, 가로(徑)가 2척 3촌이다. 그 대석(臺石)이 1개이니, 발(足)에는 상하에 조각하니 모두 8면이다. 그 상 1척 3촌은 양련(仰蓮)을 새기고, 1척 2촌은 허리를 지었다. 8면의 매 면 모퉁이에 연주(蓮珠)를 새기고, 다음 1척 5촌의 위에는 복련(覆蓮)을 새기고, 아래는 운족(雲足)을 새겼다. 높이가 4척이며, 가로가 3척 2촌이다(인용자 강조). 『세종실록』 2년(1420년, 경자) 1월 3일(임인) 5번째 기사.

11) 실록에 병풍석 지면석의 크기는 높이가 각 2척 8촌, 길이가 각 4척 8촌 5푼, 두께는 각 3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쌍릉 형식으로 재조성했다는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조선왕릉에서 천릉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능의 형식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 또한 석물에서 보이는 규모와 세부 양식의 불일치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후대에 석물을 완전히 개수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후릉을 천봉했다거나 석물을 완전히 새로 조성했다는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과 실물이 서로 다른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III. 『세종실록』 왕릉 기록의 진정성

그렇다면 『세종실록』 기록에 신빙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세종실록』에는 1420년(세종 2) 1월 3일의 정종 후릉에 대한 산릉제도의 기록 이외에도 다른 왕릉의 산릉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1420년 9월 16일의 원경왕후 헌릉(獻陵), 1422년(세종 4) 9월 6일의 태종 헌릉, 그리고 1446년(세종 28) 7월 19일의 세종 수릉(壽陵)인 영릉(英陵)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오례」에 실린 산릉의 제도이다. 하나의 실록에 이렇게 여러 왕릉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실린 것이 특이한데, 이는 세종조가 『국조오례의』가 편찬되기 이전이고 개국 후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사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종실록』에 실린 왕릉에 대한 기록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왕릉 조성에 대한 실록의 기록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릉에 대한 기록 이후의 첫 기록은 1420년 9월 16일의 원경왕후 헌릉에 대한 내용이다.¹²⁾ 실록에는 능을 단릉으로 조성했으며 문석인과 무석인의 키가 234cm(7.5척)로 기록되어 있다. 단릉 형식은 태종이 나란히 묻히면서 쌍릉으로 변경되었지만, 실제 석인상들의 크기는 약 220-233cm 정도로 기록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외의 『세종실록』에 기록된 석물들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혼유석을 비롯해서 모든 석물의 크기가 기록과 실제 석물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¹³⁾ 크기뿐만

12) 「산릉제도」, 『세종실록』 2년(1420, 경자) 9월 16일(신사) 3번째 기사.

아니라 세부 문양에서도 기록과 실물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다.

원경왕후 헌릉을 조성한 지 2년 후, 1422년 9월 6일 태종 헌릉의 산릉 기록을 살펴보면 기록과 실물이 역시 다르지 않다.¹⁴⁾ 단릉으로 조성되어 있던 원경왕후 능 옆에 능을 추가로 만들어 쌍릉으로 조성했으며 이에 맞추어 석물도 추가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한 예로, “신 석양(新石羊)이 4개, 석호(石虎)가 4개, 구 석양(舊石羊)이 4개, 석호(石虎)가 4개로 모두 16개”라고 구체적으로 석물의 개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그대로 배설되어 있다. 사초지의 3계절 역시 동서 너비도 55.5척에서 104.3척으로 2배 확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12개 지대석 밖에 2척쯤 간격을 두고 먼저 석난간(石欄干)을 두어 원경왕 태후 능실의 석난간과 연하여 배치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태종의 능이 원경왕후의 능과 나란히 조성되어 있는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세종실록』에 실린 왕릉의 산릉제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영릉에 대한 내용이다.¹⁵⁾ 세종은 소헌왕후가 죽자 자신의 능을 수릉(壽陵)으로 함께 꾸미게 되는데, 1446년 7월 19일 「능실제도」라는 항목의 기록에 “왕후의 실(室)은 동쪽에 있고 수실(壽室)은 서쪽에 있다”라고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내막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영릉은 이미 여주로 천봉하였기에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없으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영릉의 석실 내부에 사신도를 그렸다는 내용이 실록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릉을 여주로 천봉한 이후에 석실과 석물을 땅에 묻어둔 상태로 있다가 1856년에 이 자리로 순조 인릉을 천봉하게 된다. 이때 구 영릉의 석실을 허물고 인릉을 조성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이조참판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구 영릉에 석실 내부의 사신 도가 생생하게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세종실록』의 기록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또한 『세종실록』에 “석마는 석인의 남쪽 조금 뒤에 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는 왕릉에 석마를 세우지 않았다가 세종 영릉을 조성하기 4년 전인 1442년에 왕릉에 석마를 세우려

13) 그 외 혼유석의 폭이나 병풍석 면석의 높이 등 여러 면에서 기록과 근사치를 보임(표3 참조).

14) 「산릉제도」, 『세종실록』 4년(1422, 임인) 9월 6일(경신) 3번째 기사.

15) 「능실제도」, 『세종실록』 28년(1446, 병인) 7월 19일(을유) 10번째 기사.

16)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2009), 163-164쪽 참조.

는 논의가 있는 이후에 처음으로 조선왕릉에 석마가 등장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⁷⁾ 이는 새로운 제도를 반영해서 영릉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며, 또한 『세종실록』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세종대왕 ‘구 영릉(舊英陵)’ 석물 연구」에서 현재 인릉의 주요 석물이 구 영릉 석물임을 규명한 바 있는데, 석물의 양식뿐 아니라 「세종오례」에 실린 문석인 크기(8.3척, 259cm)와 현재 인릉에 배설되어 있는 문석인의 실물 크기(260cm)가 일치하고 있어 인릉의 석물이 구 영릉의 석물을 재사용한 것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세종실록』에 실린 4건의 산릉에 대한 기록 중 후릉 이외의 3건은 실물과 기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후릉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1420년 1월 3일자 산릉 기록 역시 단순한 오류로 볼 수는 없다.

IV. 후릉의 후대 변형 가능성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종실록』의 왕릉에 대한 기록들이 정확하다면, 후릉 기록과 실물의 불일치는 후대에 후릉의 개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후릉의 현재 모습이 조성 당시의 원래 모습인지, 아니면 후대에 개수로 인하여 변형되거나 석물이 대폭 축소된 상태로 간소화되었는지는 문헌 기록과 유물의 양식 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

현재 후릉에 대한 기록에서 원래 무덤을 옮겼다거나 처음에 단릉이었던 능을 후대에 쌍릉으로 조성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정안왕후 사이에 후사가 없던 정종의 능을 세종 이후에 재조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쌍릉 형식의 능은 원래의 모습일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이는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기록과 실물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석물을 들 수 있는데, 석물이 후대에 재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문헌은 물론 동시대에 조성된 다른 왕릉의 석물

17) “왕세자에게 명하여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을 불러 보고 능실(陵室)에 석마(石馬)와 석호(石虎)를 세우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24년(1442, 임술) 10월 18일 (을사) 1번재 기사.

양식과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후릉 석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석물의 간소화 현상이다. 그러면 『세종실록』의 후릉 산릉에 대한 기록 이후에, 후릉의 석물이 간소하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후대의 개수 여부와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후릉의 석물이 크지 않다는 기록은 숙종대에 단종 장릉과 사릉을 조성할 때 왕릉 간소화의 전범으로 후릉을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¹⁸⁾, 이미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에도 후릉의 석물이 작다는 언급이 있다. 1574년(선조 7)에 조현(趙憲)이 상소를 올리려고 쓴 『동환봉사(東還封事)』에 있는 “…… 공민왕 때 처음으로 석장(石藏)을 만들어서 그 석물이 커졌습니다. 국초(國初)에는 그 제도에 따랐으나 제릉과 후릉은 그리 높고 크지 않았는데, 태릉·강릉에 이르러서는 몹시 사치하고 커져서……”라는 대목인데¹⁹⁾, 이를 통해 후릉과 제릉의 석물이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다른 왕릉들의 석물에 비해 작게 조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록에서 본격적으로 후릉의 석물이 간소하다는 점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17세기 현종 때 수개를 시작하면서부터다. 후릉이 조성된 지 100년이 지난 1519년(중종 14)에 후릉의 수축 문제를 한 차례 의논했으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²⁰⁾, 그때까지 봉분을 다시 수축하거나 석물을 다시 만들어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¹⁾ 후릉 석물에

18) 장릉과 사릉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45권 제1호(2012), 34~51쪽 참조.

19) 조현, 〈擬上十六條疏/陵寢之制〉, 『東還封事』(1574).

20) “신 등이 후릉을 가보니 금년에 시급히 수축해야 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일인데 능침 역사를 시작함은 신도에게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부득이 수축해야 할 처지라면 마땅히 민폐를 돌볼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사를 시작할 것이 없다.” 『중종실록』 14년(1519) 9월 24일 기사.

21) 『현종실록』 6년(1665) 9월 3일 기록에 후릉의 수축을 논의하며, 허적(許積)이 “이미 1백 50여 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개봉한다면 의당 쿵쿵 다지면서 축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니, 어찌 매우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언급되어 있어(인용자 강조), 마치 수축을 논의한 적이 있던 중종 14년(1519)에 실제로 수축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기록인 『후릉수개도감의궤』의 을사년 9월 6일 기록에는 허적이 한 말을 “250년 후인 오늘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실제 후릉이 처음 조성된 해를 가리키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23일 『승정원일기』를 보면, 왕이 언제 후릉이 봉릉되었는지 문자, 허적이 “거의 260여 년이 되었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현종실록』에서 허적이 언급한 ‘150여 년’은 250여 년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릉을 조성한 이후 현종 대에 후릉수개도감을 설치하기 이전까지 250여 년 동안 후릉을 수축하거나 개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666년(현종 7)에 후릉의 수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석물의 문제를 거론한 대목이 있다.²²⁾

공조 참판 이시매(李時棟)가 아뢰기를, 신이 후릉을 봉심하였는데, 사대석, 병풍석, 상석(裳石) 등에 간혹 잡석을 사용하였고, 망주석과 양·마(羊馬)는 체제가 간소하고 조각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수하려면 반드시 전부 고쳐야만 미진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당시에 일을 맡았던 신하가 어찌 감히 이렇게 신중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유명(遺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만약 유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면 이제 와서 개수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고 크게 하는 것 또한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유명이 있었다면 반드시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사관을 보내 실록을 참고해보게 하라.”

이는 당시에도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후릉 석물이 매우 간소하게 조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종은 후릉의 석물이 작고 간소하게 조성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실록의 기록에는 “선대의 유명(遺命)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관 윤경교(尹敬敎)를 강화에 보냈지만 실록에 나타난 곳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²³⁾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후릉은 수개 이전에 원래 석물이 작고 간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릉수개도감을 설치하여 후릉을 수리하였지만 전체를 새로 조성하지는 않았다. 이때 『후릉수개도감의궤』를 간행했는데, 이를 참조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에서는 후릉의 주요 석물이 원래의 것임을 밝혀놓았다.²⁴⁾ 따라서 현재 후릉의 석물은 후일에 변형 내지는 다시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라 후릉 조성 당시부터 배설되었던 석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실록』의 기록과 달리 후릉의 석물은 처음부터 간소하게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릉 석물의 실제 크기는 17세기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숙종대에

22) 『현종실록』 7년(1666) 10월 26일.

23) 『현종실록』 7년(1666) 11월 4일. 한편 『후릉수개도감의궤』, 병오년(1666) 11월 10일(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 2008, 81-84쪽)에는 후릉을 실검하고 나서 후릉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종실록』의 기록을 후릉의 것으로 믿고 이 기록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한 대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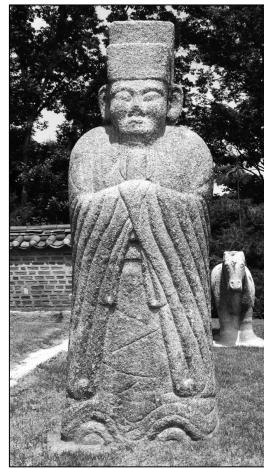
2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2009), 269-283쪽.



도6-후릉 문석인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
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
300쪽)



도7-건원릉 문석인,
1408년



도8-현릉 동편 문석인,
1420년

간행된 장릉과 사릉 산릉도감의궤와 명릉 산릉도감의궤에는 후릉의 석물을 실측한 크기가 기록되어 있다. 각 의궤에서 석물 중 대표적 석물인 문석인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7.5척(234cm)이라는 『세종실록』의 기록과 전혀 다르게 장릉 산릉도감의궤에는 5.1척(159cm), 사릉 산릉도감의궤에는 5.2척(162cm), 명릉 산릉도감의궤에는 5.11척(160cm)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세 의궤의 기록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데, 모두 160cm 내외의 작은 크기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 왕릉-종합학술보고서 I』에는 후릉 문석인의 크기를 178cm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숙종대의 기록들과는 다소 차이가 크지만, 이 수치는 『세종 실록』에 언급된 수치보다 숙종대 의궤들의 기록에 더 가깝다. 따라서 『세종실록』의 기록과 달리, 실제 후릉 석물은 처음부터 작게 조성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현재 후릉에 배설되어 있는 석물이 후대에 다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능 조성 당시의 것임을 석물의 세부 표현 양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비교하기 쉬운 석물로 문석인을 들 수 있는데, 후릉의 문석인(도6)은 그 이전에 조성된 건원릉 문석인(1408)(도7)이나 후릉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현릉의 문석인(1420)(도8)과 조형적 특징이 일치한다. 특히 문석인의 얼굴 표정과 등근 어깨선, 양손으로 홀을 들고 있으나



도9-신덕왕후 정릉
문석인, 1669년

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표현된 점은 서로 유사하며 이는 후대의 문석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로서 조선 초기 문석인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민왕릉 문무석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유례한 측면선과 오목조목 한 이목구비 표현 등의 특징과 함께 조선 초기에 조성된 석인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후대로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둔중하고 점점 양식화되어간다. 후릉의 문무석인상은 17세기에 수개된 조선왕릉 문석인들에서 나타나는 양식화된 특징과는 완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후릉을 수개하면서 석물들을 다시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로 1669년에 재조성된 신덕왕후 정릉 문석인(도9)이 이와 같이 석물 조성 시기에 따른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후릉의 산릉도감의궤가 없어서 석물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²⁵⁾ 정안왕후 장례 기간은 추수의 계절이었기 때문인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 석물이 능 조성 당시에 제작되었다면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난 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장례 기간 중에는 산릉군(山陵軍) 3,000명이 동원되었으나, 장사일을 20여 일 앞둔 1412년 7월 17일에 1,000명을 먼저 추수하도록 내려보냈고²⁶⁾, 8월 8일에 봉분의 흙을 올리자 즉시 대장(隊長) · 대부(隊副)를 제외하고는 모두 곡식을 거두도록 돌려보냈다. 정황적으로 40일의 장례 기간 동안에 3,000명의 산릉군으로 석물까지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⁷⁾ 또한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정종의 후릉 참배과정에서 석물이나 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릉의 산릉도감의궤가 사라진 현재로서 능 조성에 대한 더 이상의

25)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에서는 돌의 품질과 상태로 동쪽 왕후릉 석물은 1412년, 서쪽 왕릉 석물은 1419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26) 『태종실록』 12년(1412) 7월 17일.

27) 참고로 다른 왕릉을 조성할 때에 동원된 역군에 대한 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건원릉에는 6,000명(1408년 7월 5일), 원경왕후 현릉에는 1만 4,000명(1420년 8월 15일)이 동원되었으며, 태종이 죽고 두 달 후, 1422년 7월 12일에는 박자첨이 인부 1만 명을 요청하였고, 세종의 영릉도 1만 5,000명(1447년 7월 5일)이 동원된 기록이 있다. 물론 조성의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겨울에 3,000명의 인부로 40일 안에 병풍석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후릉이 조성된 시기는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을 때인데, 산줄기에 배치된 봉분의 위치로 보아서 정종이 당초에 자신도 함께 묻힐 수 있도록 쌍릉 형식으로 계획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상왕인 정종이 정안왕후 능의 규모를 간소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8년 후에 정종이 죽자 유언이라는 명분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봉분과 석물을 한 벌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후릉을 조성했을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원래부터 후릉이 간소하게 조성된 이유를 추측해보면, 후릉을 조성할 당시에 정종에 대한 예우가 일반 왕과는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정종이라는 묘호가 1681년(숙종 7)에 이르러서 정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종 자신이 물리난 임금으로서 욕심을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종은 불과 3년 전에 신덕왕후 정릉이 파헤쳐지고 석물이 광통교의 돌다리로 쓰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정종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간소하게 꾸미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정종은 자신을 낚추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홍언필(洪彦弼, 1476-1549)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전해 듣기에는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 태종에게 빨리 전위(傳位)하려 하셨는데, 그 겸양하는 덕이 지극히 크므로 잠저(潛邸) 때부터 늘 ‘여기에 묻어야 한다’ 하셨고, 그 능의 수호군을 다 노비(奴婢)로 하고 왕자의 작질(爵秩)도 다 강등하라는 것을 다 유교(遺教)하셨다 합니다.²⁹⁾

선조 때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역시 공정대왕은 스스로 처리하고 모든 일을 다 줄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³⁰⁾, 후릉이 간소하게 조성된 데는 정종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릉의 석물이 정종 사후에 태종의 묵인하에 세종대에 간소하게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종의 후릉은 세종이 즉위하던

28) 정종 지문(誌文)에 “정월 초3일 임인에 예로써 송경(松京) 해풍군(海豐郡) 정안왕후의 능에 합장하니, 이것은 유명(遺命)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실록』 2년 (1420, 경자) 1월 3일(임인).

29) 『중종실록』 39년(1544) 8월 19일.

30) 『선조실록』 2년(1569) 5월 21일 기사. “공정대왕은 스스로 처리하고 모든 일을 다 줄였다고 하였는데 대개가 『무정보감』에 실려 있으니 상께서도 필시 아실 것입니다.”

해에 조성되었는데, 이 시기는 세종이 즉위 초로 실권이 없었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해년(1419)부터 임인년(1422)까지 내가 비록 임금 자리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국정은 모두 태종에게 말한 뒤에 시행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일은 없으니, 그 4년 동안의 사초를 모두 두납하여 태종실록에 기재하는 것이 어떠나.”³¹⁾

실제로 정종은 사망 후 1681년까지 260여 년 동안 왕의 묘호(廟號)도 없이 권서국사(權署國事)에 머물러 제대로 된 임금 대우를 받지 못했다.³²⁾ 조카인 세종이 정종의 존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음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세종이 명나라에 보낸 글, 정종에 대한 예우, 정종의 후손에 대한 대우, 신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³³⁾ 그리고 후릉의 수호군은 제릉의 수호군이 50호였던 것에 비하여 10호가 적은 40호밖에 안 되었으며³⁴⁾, 세종 12년(1430)에 예조에서 종묘의 각 실과 제릉과 현릉을 포함한 모든 능의 탁자에는 주토(朱土)와 송연(松烟)을 칠하였으나 후릉은 주홍(朱紅)으로 칠하였다.³⁵⁾ 세종 29년(1447)에 여러 산릉과 진전(眞殿)의 제사 품목의 위치를 정하면서 후릉은 다른 왕릉과 달리 제탁(祭卓)에 화초(花草)를 놓지 않았다.³⁶⁾ 이러한 정종에 대한 차별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성종 23년(1492)에 금산군(金山君) 이연(李衍)이 후릉의 삭망제(朔望祭)가 여러 능에 비하여 빼짐이 있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후릉의

31) 『세종실록』 6년(1424), 12월 1일.

32) 권서국사는 국사를 임시로 서리하는 관직으로, 정종은 명나라의 책봉이 있기 전에 왕위에서 물러났으므로, 권서(權署)라는 말이 붙었다.

33)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주, 『왕의 영혼, 조선의 비밀을 말하다』(다음생각, 2012), 77-83쪽 참조.

34) 『세종실록』 23년(1441) 8월 9일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후릉의 수호군이 40호이고 제릉의 수호군이 50호이오니, 이제 세자빈 묘의 수호군은 마땅히 조금 감하여 30호로 하게 하소서.”

35) 『세종실록』 12년(1430) 9월 8일(병오) 기사. “앞서 종묘의 육실(六室)과 덕릉·안릉·지릉·숙릉·의릉·순릉·정릉·회릉·건원릉·제릉에 찬품(饌品)을 드리는 탁자에는 주토와 송연으로 칠하고,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후릉·현릉의 탁자에는 주홍으로 전부 칠을 하였사온데, 이제 살피오니 문소전과 광효전은 모두 평상시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전과 같이 주홍빛으로 전부 칠한 것이오니, 건원릉과 제릉·현릉의 탁자는 종묘 육실과 모든 산릉의 예에 따라 송연으로 칠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6) 『세종실록』 29년(1447) 11월 2일.

제향(祭享)이 다른 능과 다른 것은 조종조(祖宗朝)부터 이미 그려하였으나, 이제 와서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³⁷⁾ 이후 중종 14년(1519)에도 “공정대왕에게는 국기(國忌)도 거행하지 않고 춘추의 제향도 차리지 않아, 모든 일을 선왕들과 같은 예(禮)로 하지 않는 국가의 예전(禮典) 및 선왕들의 뜻이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³⁸⁾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정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후릉을 조성할 당시에 석물을 의도적으로 간소하게 조성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종 때 후릉을 수개하면서 “당초 석물을 만들면서 일에 정성이 없는 것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으니”라는 대목에서도 드러나듯이³⁹⁾, 후릉은 조성 당시부터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후릉의 석물은 조성 당시에 이미 간소하게 제작되었고 현존하는 석물은 후릉 조성 당시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⁴⁰⁾

V. 『세종실록』 후릉 기록의 실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종실록』의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높고 현존하는 후릉의 석물도 능 조성 당시에 만들어졌다면, 『세종실록』에 실린 후릉 산릉에 대한 기록의 정체는 무엇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후릉의 산릉에 대한 관한 기록이 아니라, 개국 초에 조성된 왕릉 중에서 하나의 등록이나 의궤의 기록을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릉에 앞서 조성된 능인 신덕왕후 정릉(1397), 신의왕후 제릉(1407), 태조 건원릉(1408)의 석물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37) 『성종실록』 23년(1492) 11월 25일.

38) 『중종실록』 14년(1519) 7월 26일.

39) 『후릉수개도감의궤』, 을사년 8월 21일.

40) 후릉의 수리는 1667년(현종 8)에 망주석을 새로 만들고 일부 부재를 바꾸는 등 대대적인 수개 이후에도 1719년(숙종 45), 1724년(경종 4), 1796년(정조 20), 1829년(순조 29), 1854년(철종 5), 1864년(고종 1), 1877년(고종 14), 1879년(고종 16), 1902년(고종 6) 등에 걸쳐서 여러 번 보수가 있었으나 석물제도의 기본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정원일기』 숙종 18년(1692) 8월 26일에 “東武石二坐, 文石一坐, 西武石一坐, 鼻尖小碎”라는 기록은 현재 석인상에서 볼 수 있는 코 부분의 손상과 일치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훼손된 상태로 배설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10-신덕왕후 정릉 장명등, 1397년



도11-공민왕 현릉 장명등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1』, 26쪽)



도12-제릉 난간석 주두,
1407년(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
고서 1』, 171쪽)

우선 1420년 1월 3일 『세종실록』 산릉의 기록이 신덕왕후 정릉에 대한 기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현재 1397년에 조성된 정릉은 사라졌지만, 청계천에 남아 있는 정릉의 병풍석 부재와 현재 정릉에 배설되어 있는 장명등(도10)만으로도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 『세종실록』 후릉 기록에는 병풍석 면석의 크기가 높이 약 87cm(2척 8촌), 길이 약 151cm(4.85척)로 되어 있는데, 청계천에 있는 병풍석 면석은 높이가 101cm, 길이가 약 241cm로 정릉의 석물이 훨씬 크다. 장명등 격석의 높이도 『세종실록』의 기록에는 53cm(1.7척)로 되어 있는데, 정릉은 약 63cm로 정릉의 장명등 역시 기록보다 크다. 또한 정릉과 공민왕 현정릉은 모두 김사행이 감독했으며 정릉은 현정릉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4각 장명등을 세웠다(도11).

한편 『세종실록』의 기록이 제릉에 대한 내용 역시 아니라는 사실은 난간석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세종실록』 기록에는 난간석 주두를 설명하면서 “석주가 12개인데, 높이가 6척 6촌이다. 1척은 등근머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릉보다 10년 후에 조성된 제릉의 난간석주는 방두형이다(도12). 따라서 『세종실록』의 기록은 제릉에 대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며, 현재 후릉의 난간석주가 사각형의 방두(方頭)인 것은 제릉과 같은 동시대의 능 석물 형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종 때 후릉을 수개하면서 석물의 일부를 다시 제작했다 하더라도 난간석을 모두 교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난간석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조성된 왕릉 중에서 난간석 주두가 원두(圓頭) 형태인



도13-건원릉 난간석 주두,
1408년



도14-신녕궁주묘 장명등,
1435년, 남양주

경우는 건원릉 석물뿐이다. 건원릉의 난간석주 주두를 후대에 만들었거나 정릉에서 먼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으나⁴¹⁾, 이때까지 난간석주를 원두형으로 제작한 경우는 1408년에 조성된 건원릉 석물이 유일하다(도13).

정리하자면, 『세종실록』의 기록이 정릉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정릉의 장명등이 사각형이기 때문이고, 제릉에 대한 기록이 아닌 근거는 인석이 초화가 아닌 용두 형식이고 난간석주 머리가 사각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명등을 후대에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15세기 이후의 사각 장명등 하대석에는 안상문을 새기거나 운족을 새겼으므로 양식적으로 태종의 후궁이었던 신녕궁주 신빈 신씨(?-1435) 묘 장명등의 대석처럼 15세기의 형식을 보여준다(도14).

앞서 언급한 3개의 능과 『세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면,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으로 알려진 내용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부합하는 경우는 현존하는 건원릉 석물뿐이다. 주요 부분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2와 같다.

41) 『건원릉병풍석해체보수 공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8), 43쪽 및 『조선왕릉-종합 학술보고서 I』, 60쪽을 참조한 견해이지만, 석주의 모서리가 없이 동그란 주두 아래 양복련이 망주석과 같은 계통이어서 개수하였더라도 처음의 양식을 따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조선 초기 왕릉과 『세종실록』 후릉 기록 양식 비교

구분	『세종실록』 기록	제릉	건원릉	후릉	비고
		1407년	1408년	1420년	
형식	“석인이 4개이니, 2인은 관대하고, 2인은 의갑하니”	단릉	단릉	쌍릉	
난간석 주두	“1척으로 둥근 머리를 만들고”	방두(方頭)	원두(圓頭)	방두(方頭)	
난간석 동자석주	“그 내외 면에 각각 운두(雲頭)를 하고”	운두	연엽	운두	
인석	“외단에는 목단·규화·국회를 좌우에 서로 사이하니”	용두	화문	확인 불가	공민왕릉은 금강저
장명등	“장명등 [...] 모두 8면이다”	8각	8각	4각	

표3-조선 초기 왕릉과 『세종실록』 후릉 기록 치수 비교

구분	정릉	제릉	건원릉	『세종실록』	후릉	현릉	비고
	1397년	1407년	1408년	후릉 기록	1420년	1420, 1422년	
석양 길이	확인 불가	120cm	162cm	156cm (5척)	120cm	164cm	
석호 길이	확인 불가	120cm	140cm	125cm (4척)	110cm	118cm	앉은 형상이어서 측량 오차 심함
문석인 키	확인 불가	297cm	233cm	234cm (7.5척)	178cm	224cm	제릉은 좌대 포함
무석인 키	확인 불가	297cm	223cm	234cm (7.5척)	175cm	233cm	제릉은 좌대 포함
망주석 주신	확인 불가	255cm	194cm	200cm (6.4척)	171cm	175cm	
장명등 격석 높이	63cm	48cm	51cm	53cm (1.7척)	확인 불가	53cm	
혼유석 폭	205cm	340cm	338cm	344cm (11척)	250cm	342cm	
병풍 면석 높이	확인 불가	83cm	84cm	87cm (2.8척)	76cm	83cm	

* 제릉과 후릉 치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를 근거로 하였고, 다수 석 물일 경우 평균 혹은 근사치로 소수점 이하는 조정함

* 15세기 영조척 1척은 박흥수의 연구에 따라 31.22cm로 환산

위의 석물 양식 비교표(표2)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표본은 조형적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세종실록』의 기록이 건원릉과 일치하는 더욱 결정적인 근거는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문무석인상을 비롯하여 석수, 망주석, 혼유석, 병풍석 등 모든 석물의 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도15-건원릉 동자석주, 1408년



건릉, 정조, 1800. 휴경원, 수빈박씨, 1823

도16-건릉(1800년)과 휴경원(1823년)
산릉도감의궤 도설 비교

『세종실록』 후릉 기록에 난간석 동자석주 형태가 “1척 1촌으로 둑근 머리를 삼고, 그 내외(內外) 면에 각각 운두(雲頭)를 하고, 그 운두는 죽석을 연접한 곳을 떠받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원릉 석물의 연엽(蓮葉)(도15)과 다를 뿐, 그 이외에는 거의 모든 요소가 건원릉과 일치한다. 이렇듯 석물의 양식은 물론 크기까지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으로 알려진 내용이 건원릉에 대한 기록이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VI.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과 <국상의제(國喪儀制)>

『세종실록』에서 후릉의 산릉 부분에 건원릉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실록』이 문종 12년(1452)에 찬술되었으니, 당시 사관이 사초(史草)를 바탕으로 정리할 때 후릉에 대한 기사는 후릉의 등록이나 상장의궤를 참조했을 터인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사관의 실수로 건원릉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후릉의 기록을 위해 사용한 사초는 후릉의 의궤가 아니라 등록이었을 것이며⁴²⁾, 후릉 등록에 참고했을 건원릉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일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물에서 앞선 능의 등록이나 의궤를 그대로 옮겨놓은 예는 실제로 존재한다(도16).⁴³⁾

42) 정종 후릉을 조성한 후 상장의궤(喪葬儀軌)는 5년 후인 1425년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완성하였다. 『세종실록』 7년(1425) 11월 24일.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세종실록』에서 후릉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개국 초기에 조선의 산릉제도의 표준을 마련하여 기록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1420년은 조선의 오례의 가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왕릉 석물제도의 표준이 필요한 시기였다. 정종 후릉에 앞서 조성된 신덕왕후 정릉, 신의왕후 제릉, 태조 건원릉은 고려 공민왕의 현릉·정릉을 감독했던 김사행(金師幸)과 그를 이은 박자 청(朴子青) 계열의 공장(工匠)들이 조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산릉제도가 반영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고려와 차별화된 고유의 산릉제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후릉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실록에 기록하여 후대에 참고하도록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논점에서 필자가 새로운 제도를 추적한 결과, 〈국상의제(國喪儀制)〉를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의 새로운 산릉제도로 볼 수 있는 〈국상의제〉는 태종의 명으로 1415년(태종 15)에 예조에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여 태조의 상장의궤(喪葬儀軌)를 바탕으로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인데, 이는 「세종오례」 이전의 제도로서 조선 최초의 국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국상의제〉의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침찬 혀조(許稠)가 상서(上書)하기를, “우리 태상 전하가 을미년(1415)에 예조에 명하여 국상의제(國喪儀制)를 제정하게 하였는데, 좌의정 이원(李原)이 그때 예조 판서로서 친히 이 명령을 받았고, 신은 그때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제조로서 그 대략을 들었고 동부대언(同副代言) 곽준중(郭存中)은 별감으로 그 일을 담당하여, 제조 진산부원군 하윤(河峯)의 계획에 의하여 면재(勉齋) 황씨(黃氏)의 《儀禮經傳通解續》·《杜氏通典》·《朱子家禮》와 명나라에서 반포한 태조고황제의 발애조장(發哀條章) 및 우리 태조 강현대왕의 상장의궤를 수집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초안을 세우고 수년 동안 갈고 다듬어서 성안하였으나, 흥한 일은 미리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차마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미루어둔 것인데, 기해(1419)에 공정대왕이 상승(上昇)하였을 때, 신이 예조 판서로서 그 시발을 계하여, 상례를 새로 제정한 의제에 따라 시행하고, 그 이듬해 경자년에 원경왕태후가 승하하였을 때 초상의 일을 더욱 자세

43) 일례로, 1823년 휘경원의 산릉도감의궤의 문석인 도설은 1800년 건릉의 도설을 그대로 신고 있다(김이순, 「융릉과 건릉의 석물조사」, 『미술사학보』 제31집, 2008, 85쪽). 그리고 장릉(莊陵, 1688)의 ‘이문질’에 戊寅 11월 25일에 보면 “文武石雪馬二次中不等八條, 馬石四雪馬六次小不等八條”이라고 하여 실제 장릉에 없는 무석인과 석마4기(실제는 2기뿐임)를 운반하기 위한 썰매를 마련한다는 기록은 참고한 다른 농의 기록에서 옮겨 적은 자료로 볼 수 있다.

히 심의하여, 그 의궤는 공정대왕 상장의궤보다 더 자상하여, 국상의궤(國喪儀軌)가 제정된 것입니다.⁴⁴⁾ (인용자 강조)

여기에서 주목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1419년 이전에 〈국상의제〉를 제정해놓았지만 흉한 일이라서 차마 공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종의 장사를 지내면서 새로 제정한 상례를 시행했다는 점이다.⁴⁵⁾ 실제로 후릉 이후의 능 석물을 분석해보면, 아래의 석물 비교표(표4)에서 드러나듯이, 후릉의 산릉으로 알려진 『세종실록』에 기록된 석물의 수치는 이후 현릉 석물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의 1420년 1월 3일의 산릉 기록은 후릉에 대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건원릉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 실록의 내용은 건원릉의 실측 자료라기보다는 건원릉을 바탕으로 마련한 산릉제도를

표4-『세종실록』의 왕릉 주요 기록(단위: 척)

구분	세종 2년 1420. 1. 3.	세종 2년 1420. 9. 16.	세종 4년 1422. 9. 6.	세종 28년 1446. 7. 19.	세종오례
	후릉-정종	현릉-원경왕후	현릉-태종	영릉-소현왕후	
석실 크기	8×7×11	좌동	좌동	10×29×25.5	좌동
문석인	7.5(+대4)×3×2.5	좌동	좌동	언급 없음	8.3(+3.4)×3×2.2
무석인	7.5(+대4)×3×2.5	좌동	좌동	언급 없음	9×3×2.5
석양	2.8×2.5×5	좌동	좌동	언급 없음	3×2×5
석호	4×3.9×2	좌동	좌동	언급 없음	5×3.5×2
석마	석물 없음	석물 없음	없음	배설	5×3.7×2
망주석	주신	6.4	좌동	언급 없음	7.3
	대석	2.25×2.25×2.6	좌동	언급 없음	2.1×2.1×3.6
훈유석	석상	11×6.3×1.4	좌동	언급 없음	9.9×6.4×1.5
	족석	3×3×1.6	2×2×1.6	언급 없음	2.5×2.5×1.5
장명등	정자	1.5×1.5×1.1	좌동	언급 없음	2.5
	개석	3.9×3.9×2.5	좌동	언급 없음	4.5×4.5×2.5
	격석	2.3×2.3×1.7	좌동	언급 없음	2.5×2.5×1.8
	대석	3.2×3.2×4	좌동	언급 없음	3.3×3.3×4.1
배석	6.1×3.2	좌동	좌동	언급 없음	언급 없음
계절	동서 길이 55.5	좌동	동서 길이 104.3	동서 길이 107	언급 없음

44) 『세종실록』 4년(1422) 5월 28일.

45) 『세종실록』 오례의 서문에 오례의 완성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조(本朝)에서 이미 시행 하던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를 취하고”라고 하여 〈국상의제〉는 실제 시행되었던 전례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해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과 건원릉의 실측 자료(표2)에서 동자석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이 건원릉의 실물과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국상의제〉의 표준을 정할 때 태조 건원릉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종오례」를 제정할 때는 〈국상의제〉 석물의 크기가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석물의 크기를 조금 키워서 ‘오례의’로 정착시켰다. 「세종오례」에 실린 석물제도는 1446년(세종 28) 소현왕후가 죽자 세종이 자신의 무덤을 수릉으로 함께 조성한 구 영릉을 바탕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VII. 맺음말

조선시대 초기의 왕릉제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실록』 1420년 1월 3일의 산릉 기록은 실록에서 왕릉제도에 대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므로 조선왕릉 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이 기록은 정종의 애책문 바로 뒤에 제목도 없이 본문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후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후릉의 산릉 기록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의 후릉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기록과 실물이 불일치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의 오류 가능성과 후대에 후릉이 개수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기록의 오류 가능성은 물론 개수로 인해 능이 변경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선 초기 왕릉 석물의 분석 비교를 통해 후릉의 기록으로 알려진 기록이 실제로는 건원릉 석물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고 후릉에 대한 기록에 건원릉의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단순히 실록 편찬자의 실수라고 간주하지 않았고, 조선이 개국 초기에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였다.

요컨대 문제가 되는 『세종실록』의 후릉 기록은 단순히 건원릉의 산릉 기록이 아니라 1415년에 제정된 〈국상의제〉의 내용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상의제〉는 태조 건원릉을 기준으로 제정했으나 흥례이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정종 후릉의 산릉 조성을 계기로 이 내용을 실록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록은 이후 현릉을 조성할 때 규범으로 계승되었고, 「세종오례」를 거쳐서 성종 때 『국조오례의』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릉제도에 관한 『세종실록』의 서술체 기록 방식이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앞으로 후릉의 답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세종실록』의 1420년 1월 3일 5번째 기사에서 다룬 후릉에 대한 오해를 풀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국조오례의』·‘흉례’의 기본으로, 「세종오례」보다 앞선 〈국상의제〉라는 제도가 조선 초에 제정되어 실행되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바 없는 조선 최초의 국상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상의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세종실록』의 1420년 1월 3일 5번째 기사가 건원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상의제〉가 맞다면, 건원릉을 발굴하지 않고서도 건원릉의 석실 내부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참 고 문 헌

『건원릉병풍석해체보수 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8.

『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후릉수개도감의궤』. 1667.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풀어 쓴 후릉수개도감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김문규, 「조선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 2009, 155-190쪽.

_____,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45권 제1호, 2012, 34-51쪽.

윤두수, 「조선 정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논문집』 제15권, 1990, 79-98쪽.

이상주, 「왕의 영혼, 조선의 비밀을 말하다」. 다음생각, 2012.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1871.

이정선,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경희, 『고려왕릉』. 예맥, 2010.

전나나,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 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격의 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재』 제45권 제1호, 2012, 52-69쪽.

정종수, 「조선 초기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조현, 『동환봉사(東還封事)』. 1574.

한형주, 「허조(許稠)와 태종-세종대 국가의례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제44권, 2006, 271-321쪽.

국 문 요 약

조선시대 초기의 왕릉 관련 의궤나 등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실록』 권7에 실린 1420년(세종 2) 1월 3일 5번째 기사의 산릉 관련 기록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왕릉 산릉제도이므로 왕릉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기록은 정종의 애책문에 연이어서 기사의 제목 없이 본문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종 후릉의 산릉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현재의 실물이 체제와 크기에서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문헌 기록과 석물 분석 등을 통해 이 기록이 후릉의 산릉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건원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건원릉의 산릉 기록이 아니라 「세종오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건원릉을 바탕으로 조선 최초의 국상제도인 〈국상의제(國喪儀制)〉라는 규범을 제정한 것이고 정종 후릉의 산릉을 계기로 그 규범을 실록에 옮렸음을 밝혔다.

투고일 2012. 12. 24.

심사일 2013. 2. 4.

개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조선왕릉(Royal Tombs of the Chosun Dynasty), 정종(King Jeong-jong), 후릉(Hureung), 건원릉(Geonwolleung), 『조선왕조실록』(Chosun Wangjo Sillok), 〈국상의제〉[國喪儀制, Formality of State Funerals (Guksanguije)]

